



2020년 11월 1일(제1006호) 모든 성인 대독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행복의 기준”

“교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강론 때 던진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 어느 본당을 가든 대부분 마지못해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네에..’라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어제 하루를 되돌아 봅시다. 사소한 일이라도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총합을 10으로 하자면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은 2 정도고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8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게 느껴지는 것도, 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는데 현실의 내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기에 행복한 사람들을 따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 혹은 명상 등을 통해서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그 길의 실마리를 신학교에서 들은 인문학 강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강사분은 행복을 뇌 의학 관점에서 설명하시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취’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흥’입니다. 성취와 흥이 만날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성취와 달리 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과 같아서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먼저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 아침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내일부터는 성호경을 긋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고, 코로나로 인해 미사를 가기 어렵다면 가지 못한 미사의 복음을 읽거나 필사해 보기, 작은 선행 실천 등등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한다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실천을 할 때 시작 기도로 ‘오소서, 성령님’을 바치며 은총의 바람이신 성령을 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실천과 성령의 바람이 만날 때, 하느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나에게 충실한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시정훈(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해성대(5공비전) 상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보호송

묵시 7,2-4,9-14

◎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1요한 3,1-3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마태 5,1-12ㄴ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보리라.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농인 레오



성인명: 농인 레오 (洪鎭 Leo)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58-1802년

홍인(洪鎭) 레오의 집안은 본디 한양의 이름 있는 집안이였으나, 그의 부친이 경기도 포천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장하였다. 1801년 한양에서 순교한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바로 그의 부친이다.

홍 레오의 가족이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된 것은, 1791년경 그의 부친이 양근 땅에 살던 고종사촌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게 교리를 배우면서였다. 홍 레오는 부친에게서 교리를 배웠는데, 오히려 부친보다 먼저 천주교 신앙을 진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천주교에 입교한 뒤 홍 레오는, 세속의 꿈을 모두 버리고 하느님을 섬기고 교리를 전하는 데에만 열중하였다. 그러면서 효성을 다하는 길은 부친을 신앙으로 이끄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그는 부친의 의심을 풀어 드리고, 입교를 망설이는 부친을 설득하여 마침내 부친을 신앙으로 이끄는 데 성공하였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홍 레오는 부친과 함께 주 야고보 신부를 찾아가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서오촌(庶五寸) 당숙인 홍익만 안토니오, 황사영 알렉시오 등과 함께 교류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또 부친과 같이 포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홍 레오는 부친과 의논하여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책 상자를 받아 집 안에 숨겨 두었다. 그런데 한 신자가 이 상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체포되면서 그들 부자의 이름이 박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 무렵 홍 레오와 부친은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었다. 그러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곧 집으로 돌아왔으며, 바로 그때 포졸들이 쳐들어와 그들 부자를 체포하였다. 이후 부친 홍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한양으로, 홍 레오는 포천으로 각각 압송되었다.

이윽고 홍 레오는 포천에서 첫 번째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밀고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킨 뒤, 경기 감영을 거쳐 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그에 앞서 홍 레오의 부친은 한양으로 압송된 지 얼마 안 되어 형벌을 받고 순교하였다. 홍 레오도 그 뒤를 이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를 받았으나 신앙으로 극복하였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고향 포천으로 이송되어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4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좋은 선물



어디 한 번
날아올라 볼까
이것만으로도
저 하늘을
날 듯합니다.

참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화이야기

상리지로 교회 입구



지난 2주에 걸쳐 보았듯이 본 작품은 문맹이 대부분이었던 중세시대에 글씨를 모르는 이들도 쉽게 최후의 심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 곳곳에 표현된 많은 장면들이 상당히 끔찍한 정도로 자세하게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라자로 성당은 라자로 성인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었기에 많은 순례자들이 몸과 영혼의 치유, 회개와 구원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이 성당이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시키신 라자로 성인의 이야기는 최후의 심판과 잘 연결되는 내용이다.



예수님의 시선은 사실, 가까운 곳보다 어딘지 먼 곳을 응시하고 계시는데, 이는 우리 영혼의 그 너머를 보고 계시는 느낌을 준다. 신자들은 이 문을 지날 때마다 최후의 심판의 정신을 묵상하며, 깊은 참회와 회개로 다가올 마지막 날을 준비하도록 마음을 다잡았을 것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우심회 회원들 위한 미사 - 모든 성인 대축일: 삼위일체 김용환 신부

◆ ‘군중의 시간’ 인민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상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르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